

## 왜 장기투자인가?

대부분의 투자전문가들은 분산투자, 장기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재테크, 금융 강좌를 가더라도 강사들은 목소리 높여 장기투자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왜 장기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적고, 성공의 사례들이 적은 것일까?

장기투자는 우리와 맞지 않는 투자방식이다. 인간은 본성상 즉각적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것을 좋아하고, 내일 행복한 것보다는 오늘 멋지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더구나 화끈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타일은 투자성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특히 '몰빵투자', '유형에 따라가는 투자', '묻지마 투자'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자. '베트남 펀드가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되자 베트남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펀드들이 속출했다. 실제로는 베트남에 투자자금의 30%도 들어가지 않는 펀드들이었다.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베트남 주식시장의 후진성, 작은 시장규모, 유동성 위험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추가판매가 중단되고, 해외펀드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투자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투자형태가 성공하고 있다면 싫을 이유가 없다. 주변에서 단기투자에 성공해서 1년에 50%, 100% 수익률을 올린 사례가 부동산투자, 주식투자에 많이 있다. 이에 반해 장기투자는 재미가 없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화끈한 수익률도 올리기 힘들다.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빨리 돈을 불려서 해야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장기투자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기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

부동산이 언제 오를 것이고, 주식이 언제 오를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장기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강남의 부동산이 오를 때는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고, 국내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국내펀드에 투자하고 중국주가가 오를 때는 중국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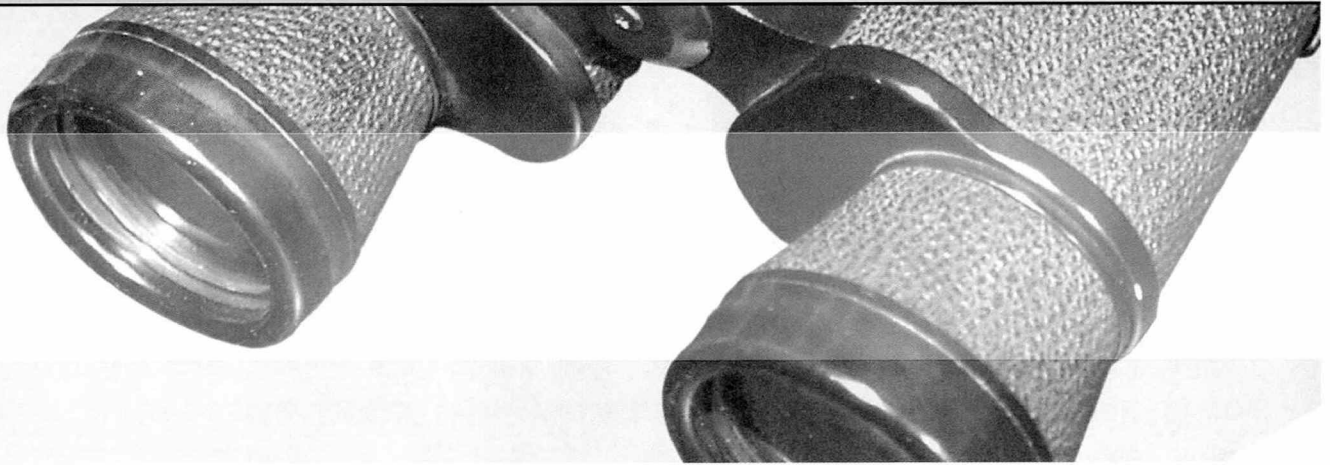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05년에 KOSPI 지수가 54.3% 상승한 국내주식펀드에 투자하고, 2006년에는 중국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2년 만에 두 배 이상의 자산 가치 상승을 경험했을 것이다. 2006년 하반기에 돈을 빼서 베트남 펀드에 투자했다면 아마 수익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럴 수 있다면 이 투자자는 10년대에 수백억, 수천억대의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2005년의 성과를 보고 2006년에 국내펀드에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고, 2006년의 성과를 보고 차이나펀드에 들어갔다가 고전하는 것이 현실이다.

1980-90년까지 미국 S&P 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7.6%였다. 미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고성장 시기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0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12.65%,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20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9.3%, 30일 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6.5%에 불과하다.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은 17.6%의 수익을 거두었지만 자신의 예측으로 만약 그 10년 3650일 동안 중 0.8%에 해당하는 30일을 쉬었다면 수익률은 6.5%가 된다는 것이다. 누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신은 인간에게 예지능력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지 않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버는 것은 시장이 벌어준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설적인 가치주 펀드 트워드 브라운의 분석에 의하면 '투자수익의 80-90%는 전체 보유기간의 2-7%사이의 기간 동안 발생 한다' 고 한다. 장기투자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이너스 수익률'



이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투자규칙 1조를 '돈을 잃지 마라' 규칙 2조를 '규칙 1조를 잊지 마라'로 정했을 만큼 잃지 않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장기투자자들은 배당투자를 선호하고, 펀드매니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언제 시장이 나에게 돈을 벌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장에 맡긴다. 이것이 초보투자자와 다른 점이다. 흔히, 고스톱을 하다보면 초보자들이 따는 경우가 많다. 이를 'Beginner's Fortune'이라고 하는데, 주식투자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은 주식시장이 상승한다고 할 때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다보면 단기간에 조금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고수가 되었고, 스스로의 투자방법이 훌륭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돈을 투자하게 되고, 호황이 끝나고 나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초보자가 고스톱에서 조금 딴 후에, 점점 단가를 높여서 큰돈을 잃게 되는 것과 같다.

진정한 프로들은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시장이 벌여 주는 것을 기다린다. 그러려면 장기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 장기투자는 펀드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롯데칠성 같은 회사의 주식에 오랫동안 장기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 주식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은 종목선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위험도 많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좋은 펀드를 선택

하는 기준을 보자. 물론 이는 장기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서의 기준이다.

#### 1 연평균 장기 수익률 10~20%

수익률의 굴곡이 큰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장기투자를 하는 펀드매니저들은 단기간의 큰 수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해 본 펀드가 없는 형편이니, 선택이 쉽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를 골라야 한다.

#### 2 독립계 회사 및 자산운용에 특화되어 있는 펀드

외국에는 개인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펀드나 독립계 운용회사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룹사에 속한 운용사들이 많다. 단기적인 운용수익률이야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을 달성해 나가는 데는 독립성이 핵심이다. 눈에 확 띄는 수익을 내야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월급사장은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운용을 고수해 나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독립계 회사나 펀드를 찾는 것이 장기투자에 적합할 것이다.

#### 3 투자 철학 및 운용스타일이 뚜렷한 펀드

안타깝지만 쉽게 발견하기 힘들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치투자를 한다는 펀드들의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배당주펀드 이면서도 배당과 별 상관없는 종목을 편입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몇몇 펀드는 그 운용스타일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펀드를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